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 최근 수출, 투자 상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입니다.

전세계적인 경기둔화와

반도체 가격의 하락 및 對중국 수출여건 부진 등으로

우리 주력업종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큰 폭의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 '23.1월 수출 463억불(전년대비 $\Delta 16.6\%$), 무역수지 $\Delta 127$ 억불

최근 IMF가 세계경제전망을 상향조정($2.7 \rightarrow 2.9\%$)하는 등

경기개선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감도 있지만,

이미 높아진 금리와 물가,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요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수출여건이 작년에 비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설비 및 R&D 투자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수요부진과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한 투자비용 증가로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4분기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국내 주요기관들은 올해 설비투자의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 '23년 설비투자 전망 : 경정 $\Delta 2.8\%$, 한은 $\Delta 3.1\%$, 산업연 $\Delta 0.3\%$,

'23년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 산은 $\Delta 8.6\%$

다만, 우리 기업들은 어려운 와중에도

작년과 비슷한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 및 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입니다.

【 수출 확대 방안 】

첫째, 빠른 시일 내에 수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상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관문인 해외 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2/3를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현장지원단과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력 제고와
조선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농림부의 K푸드, 스마트팜,
문체부의 콘텐츠, 복지부의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각 부처별 '23년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목표달성에 필요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투자 활성화 방안 】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 및 R&D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우선, 12년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제지원과 함께
각 업종별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여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첨단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한
인접 지자체간 상생인센티브 제도와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도입하여
우리 기업들이 금년에 계획중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작년 최고 실적을 기록한 외국인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첨단, 주력, 미래 산업별 100대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올해에도 300억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정상 순방계기에 이뤄진 UAE 300억불 투자유치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수출 및 투자 등 실물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 동안
전 부처 수출역량을 결집하고,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하여
세계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경제 회복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